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파월 연준의장 발언, 테슬라 하락 등의 요인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14일(목) 미국 증시는 트럼프발 미 증시 랠리가 소강 상태를 보인 가운데 생산자물가,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 파월 연준 의장 발언, 테슬라 하락 등의 요인으로 3대 지수는 하락 마감 (다우 -0.47%, S&P500 -0.60%, 나스닥 -0.64%)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계절 조정 기준 21.7만 명을 기록하며 전주대비 4천명 감소, 컨센서스(22.3만 명)도 하회. 변동성이 덜한 4주 이동평균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22.1만 명으로 전주 대비 약 6천명 감소. 주간 연속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187.3만 명을 기록하며 전주 수치 대비 1.1만명 감소.

미국의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전월수정치(0.1%)를 상회하였고 컨센서스와 부합하는 수치 기록. 한편, 전년동기대비로는 2.4% 상승하며 전월치(1.9%)와 컨센서스(2.3%)를 모두 상회. 식품과 에너지 그리고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10월 균원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0.3% 상승하며 전월치(0.1%)를 상회, 전년동기대비로는 3.5% 상승하며 전월(3.3%) 대비 상승 속도 가팔라졌음.

쿠글러 연준 이사는 현재 미국의 경제 여건은 디스인플레이션 속도가 느려지는 동시에 노동시장도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 이에 따라, 둘 중 어떤 쪽의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연준이 정책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 한편,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최근 급등 배경에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존재하는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즉, 여전히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해 연준위원들은 경계하고 있음이 확인 가능.

주요 종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M7 종목 중 애플(+1.38%), 마이크로소프트(+0.4%), 엔비디아(+0.33%) 등은 상승한 반면, 아마존(-1.22%), 테슬라(-5.77%), 알파벳(-1.84%), 메타(-0.49%)는 하락.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0.1%) 업종만이 상승한 가운데 산업재(-1.7%), 헬스케어(-1.5%), 경기소비재(-1.5%) 등의 업종이 낙폭이 컸음.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 대선 이후 나타난 트럼프발 랠리가 일부 소강 상태를 보이며 미국 증시는 현재 숨고르기 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임. 이 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1.7만 건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22.3만 건)를 하회. 특히, 6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여전히 견조한 미국 경기를 뒷받침하였음. 한편, 10월 미국의 생산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2.4% 상승하며 시장예상치(2.3%)를 상회하며 인플레이션 경계감은 지속되는 모습.

마크로 변수가 이전처럼 시장에 큰 변동성을 야기하지는 않고있지만, 미국의 견조한 경기와 물가 재상승 우려라는 조합은 시장금리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 특히, 여기에 트럼프 당선 이후 감세, 관세 부과 등의 정책 조합이 향후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되며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현재 4.4%선을 유지. 금리 레벨이 높아지며 성장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 대비 가치주 비중이 높은 다우존스의 상대 강세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날 파월 연준의장도 인플레 압력에 대응해 서두르지 않고 금리 인하에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일단, 12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는 유력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년도 연준의 금리 인하 행보에 주목하는 상황. 결국 연준은 향후 발표될 물가 지표와 경기 지표를 확인해나가며 금리인하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시 이후에 발표될 마크로 지표에 대한 증시 민감도는 더 커질 것으로 판단.

한편, 이 날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구매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할 것이라고 계획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됨. 이로 인해,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5.7%), 리비안(-14.3%) 등은 투자 심리 악화되며 주가 급락.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는 트럼프 당선인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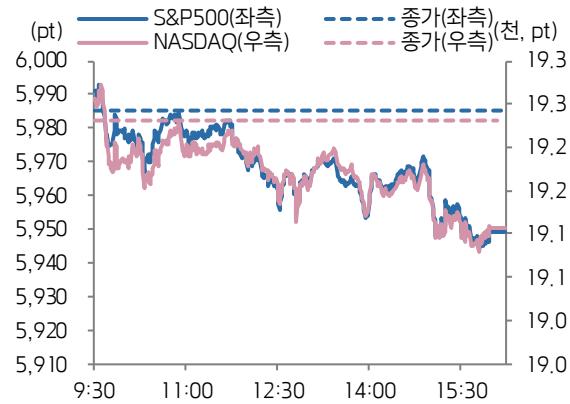
다만, 현재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해외 업체들이 공장을 지은 곳은 미시간, 오하이오, 조지아 등 러스트 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폐지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 그러나, 최근 반도체 칩스법 폐기 우려가 국내 반도체주의 투자심리를 악화 악화시킨 것과 같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취약해진 국내 증시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IRA 폐지와 관련된 뉴스플로우는 국내 전기차 관련 업체의 주가 하방 압력을 가중시킬만한 요인.

전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낙폭과대 인식 속 저가 매수세 유입되며 반등했으나, 이후 옵션만기일 변동성 확대, 반대매매 물량 출회 등의 요인으로 장 후반 상승폭 반납하며 양지수는 혼조세로 마감 (코스피 +0.07%, 코스닥 -1.17%)

금일 국내 증시는 어제처럼 장 초반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되며 반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지만, 장중 출회 가능한 반대매매 물량, 증시 거래대금 부진 현상, 삼성전자의 반등 트리거 요인 부재 등의 요인이 상방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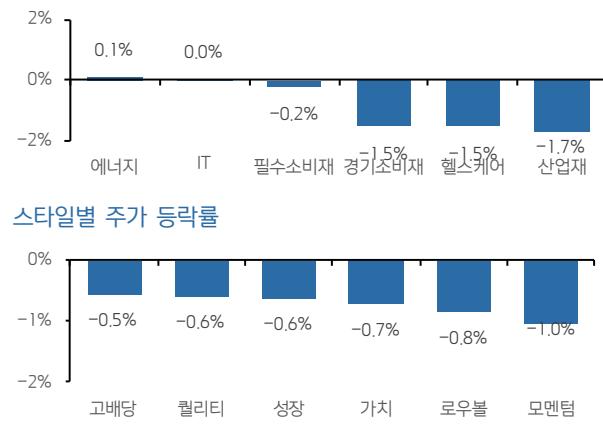
업종별로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보도로 2차전지 업체의 주가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AI 성장 전망 기대감이 지속되며 전일 ASML(+2.90%), 엔비디아(+0.34%) 등이 상승한 영향으로 국내 AI 관련주들이 반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 그 외에 트럼프 발 정책 뉴스플로우에 대한 증시 민감도가 높아진 가운데 트럼프 수혜주인 조선, 방산, 우주항공 등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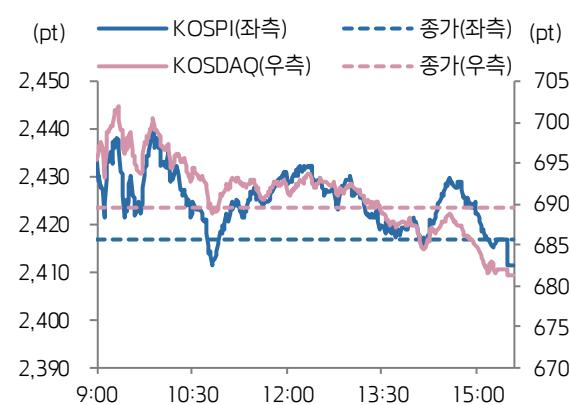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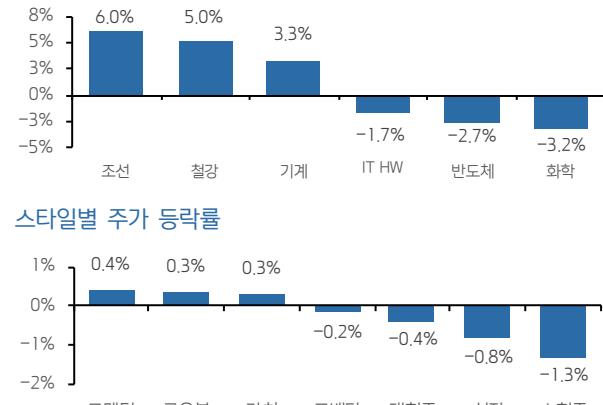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28.22	+1.38%	+19.12%	GM	57.62	-0.16%	+61.71%
마이크로소프트	426.89	+0.4%	+14.14%	일라이릴리	786.23	-3.15%	+35.53%
알파벳	175.58	-1.84%	+26%	월마트	84.47	-1.2%	+62.31%
메타	577.16	-0.49%	+63.55%	JP모건	241.87	+0.29%	+45.59%
아마존	211.48	-1.22%	+39.19%	엑손모빌	120.56	+0.07%	+24.7%
테슬라	311.18	-5.77%	+25.23%	세브론	161.80	+1.94%	+12%
엔비디아	146.76	+0.33%	+196.42%	제너럴일렉트릭	84.47	-1.2%	+62.3%
브로드컴	170.38	-1.84%	+54.28%	캐터필러	387.36	+0.07%	+33.11%
AMD	138.84	-0.33%	-5.81%	보잉	138.14	-1.31%	-47%
마이크론	99.18	-0.74%	+16.56%	넥스트에라	75.28	+1.4%	+26.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418.86	+0.07%	-8.9%	USD/KRW	1,402.50	+0.36%	+8.89%
코스피200	317.70	-0.36%	-11.25%	달러 지수	106.95	+0.44%	+5.54%
코스닥	681.56	-1.17%	-21.35%	EUR/USD	1.05	-0.39%	-4.67%
코스닥150	1,182.03	-0.92%	-15.17%	USD/CNH	7.25	+0.14%	+1.8%
S&P500	5,949.17	-0.6%	+24.72%	USD/JPY	156.27	+0.52%	+10.8%
NASDAQ	19,107.65	-0.64%	+27.29%	채권시장			
다우	43,750.86	-0.47%	+16.08%	국고채 3년	2.927	-1.5bp	-21.8bp
VIX	14.31	+2.07%	+14.94%	국고채 10년	3.075	+1.3bp	-10bp
러셀2000	2,336.94	-1.37%	+15.29%	미국 국채 2년	4.358	+7.2bp	+10.8bp
필라. 반도체	5,004.59	-0.03%	+19.86%	미국 국채 10년	4.447	-0.4bp	+56.8bp
다우 운송	17,423.12	-0.66%	+9.59%	미국 국채 30년	4.599	-3.7bp	+57bp
상해종합	3,379.84	-1.73%	+13.61%	독일 국채 10년	2.341	-4.9bp	+31.7bp
항셍 H	6,973.08	-2.21%	+20.88%	원자재 시장			
인도 SENSEX	77,580.31	-0.14%	+7.39%	WTI	68.70	+0.39%	-2.28%
유럽, ETFs				브렌트유	72.56	+0.39%	-5.82%
Eurostoxx50	4,833.53	+1.97%	+6.9%	금	2,572.90	-0.53%	+19.11%
MSCI 전세계 지수	854.85	-0.23%	+17.59%	은	30.57	-0.31%	+26.92%
MSCI DM 지수	3,767.05	-0.16%	+18.87%	구리	408.75	+0.11%	+5.06%
MSCI EM 지수	1,093.70	-0.86%	+6.83%	BDI	1,630.00	-0.24%	-22.16%
MSCI 한국 ETF	55.72	-0.29%	-14.97%	옥수수	430.50	-1.6%	-16.29%
디지털화폐				밀	549.75	-1.21%	-19.07%
비트코인	87,935.71	-0.79%	+106.87%	대두	988.50	-1.91%	-21.09%
이더리움	3,110.42	-1.4%	+36.28%	커피	279.40	+3.02%	+47.0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월 14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